

지역 메아리



김제 드림스타트 멘토링데이 열려

김제시 드림스타트와 봉사단체 청년회(회장 박재명)는 26일 청진회사무실에서 '드림스타트 멘토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회원과 드림스타트 아동이 함께 레크레이션과 다과시간을 갖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신뢰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였으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건전한 놀이 문화 체험이 부족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즐겁고 흥미로운 추억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김제시 자생적 자원봉사단체인 청년회(회장 박재명)는 2016년에 김제시청 드림스타트와 협약 이후 "건강하고 해맑은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중년 사회봉사단체나 회사, 독자가의 도움은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청년회의 봉사활동은 자라나는 아동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멘토로 참여해준 청년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관계가 설정되어 학습효과도 높이는 등 올바른 인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흥진영과 함께하는 신년콘서트

싱그러운이 가득한 신년 새봄맞이 흥진영과 함께하는 2018신년콘서트 공연이 2월 27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감동과 흥겨움을 가득 담은 무대로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트로트의 요정 흥진영이 출연 잘가라, 사랑의 배터리, 업지척, 따르릉 등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쾌하고 신나는 트로트 곡을 선보이며 아식배달부 출신 성악가 테너 김승일, 다시돌아온 감성트로트 여왕 이정옥, 여성트로트 그룹 레이디티 등이 출연 열정의 무대를 펼친다.

금년 신년콘서트는 유난히 추웠던 동절기 움추렸던 온몸을 녹이는 신나고 경쾌한 곡들로 봄의 소식을 전하는 상큼함과 화사함을 전해주는 희망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아파트 공동체 106개 선정

완주군, 사회적 경제 예비형 프로그램 신설 10개 공동체 선정

완주군이 올해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에 총 106개의 공동체를 선정했다. 26일 완주군은 2018년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선정 대상자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발표했다.

올해 선정 공동체는 총 106개소로 활동지원에 98개 공동체, 시설지원에 8개 공동체다.

활동지원사업 유형은 아파트형(1개 단지 아파트 전체 주민회합 모임), 동아리형(1개 단지 내 주민 프로그램 모임), 단지 연합형(2단지 이상 주민간 마을행사 모임), 이웃사촌형(리안 및 동별 모임), 사회적 경제 예비형 등 총 5개 유형으로 4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소득을 증대시키고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예비형 프로그램이 새롭게 신설돼 10개 공동체가 선정됐다. 전문 자격증반, 주민참여일자리형, 공동체 교류형으로 분류돼 '전문자격증반'은 5개 공동체가 선정됐다. 이들 공동체에게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년 창업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지원한다.

'주민참여일자리형'은 3개 공동체가 선정됐으며, 아파트 지하의 빈 공간과 LED 등을 활용한 포토보쉬 재배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삼례, 용진, 이서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체 교류형'은 2개 공동체가 선정돼 완주군 내 아파트, 마을, 창업

공동체 간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공동체 활동의 구심점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도 지원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총 18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3개 아파트 단지에 추가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해는 르네상스 사업 4년차로 지난해보다 많은 공동체가 구성 돼 주민 간 소통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해 지고, 공동체에서 배운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환원하는 따뜻한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실시

김제시농기센터, 경영진단·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에서는 자율, 자립 경영실현을 이추는 강소농 육성을 위해 '2018년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을 26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8년 신규 강소농 신청농가와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강한 기존 강소농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주)넥서스브레인컨설팅 조영빈 대표를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환경 변화와 경영자의 역할 그리고 강소농 경영사례"를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8년 김제의 강소농 사업은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진단과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및 농업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험으로 최적의 강소농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및 추수교육의 일련의 과정에 서 2018년 신규 강소농 신청농가와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작지만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영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며 그 해결책을 연구하고 구체화하여 비품고가역 정신을 실천하여 진정한 농가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8년 강소농 기본 교육은 농가들이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 증진, 역량개발의 강소농 핵심 실천요소인 '비품고가역' 정신을 이해하고 경영을 혁신할 열정과 의지를 더

욱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고 농촌의 상황이 급박한 이 시기에 덩치 크고 변화에 느린 큰 경영체 보다 작지만 사고가 민첩하고 강한 실천력으로 무장한 강소농이 변화를 주도하고 자율모임체 우수 모델을 확산하는 각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 교육 과정에 참석하여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보고 지역농가들의 경영혁신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대한 열망을 느꼈다고 하면서, 앞으로 혁신 농가의 작은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로 전진하다 보면 우리 농업 농촌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정기회의

김제시 성덕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26일 성덕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날 새로 부임한 새마을부녀회장(임금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장(김영숙) 등 4명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덕면발전재협의회 단합대회 추진, 마을경로당 현판장비사업 및 현안사업 설명 등 현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 부임한 임금자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은 그간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선대 사회단체장의 유지를 받들어 오는 모이신 단체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답고 보다 살기좋은 성덕면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형순 성덕면장의 시정 소개(6.13 지방선거 일정안내, 마을번호사

및 세무사 운영, 18년 쌀밭직불제사업 홍보 등)와 3.1절 태극기 게양협조 및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방법, 희망드림 복지기동대 운영 등의 시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8년 한해동안 서로 소통 교류하며 면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면 성덕면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해내는 큰 모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월동작물 웃거름 줘야”

완주군, 배수구 정비·잡초관리 등 포장관리 당부

완주군이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며 월동작물이 생육을 시작함에 따라 웃거름을 통해 생육을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동안 생장을 멈추었던 월동작물(맥류, 양파, 마늘, 사료작물 등)이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며 생육을 다시 시작함에 따라 웃거름 주기 및 잡초관리를 위한 배수구 정비, 잡초관리 등 월동 후 철저한 포장관리를 당부했다.

월동작물의 생육재생기란 추위로 멈추었던 월동작물이 날씨가 풀리면서 생육이 재개되는 시점을 말하는데 올해 겨울은 다른 해보다 추위가 유독 심해 전년보다 4일정도 늦은 지난 20일이 생육 재생일이다.

이에 내달 초까지 1차 웃거름을 주어 지상부와 지하부 뿌리가 활

높일 수 있다.

10a당 웃거름 사용량은 맥류의 경우 요소 9~12kg, 마늘과 양파는 34~36kg를 20여일 간격으로 2~3회 나눠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월동 후 심한 동해나 습해발생으로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2%(물 20리터에 요소 400g)액을 만들어 10a당 100l씩 2~3회 엽면시비 실시하고 배수구를 정비해 줘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겨울 추위가 심했기 때문에 서릿발 피해를 받은 마늘 양파 포장이 많은데 잘 눌러주고 휴면기를 실시해야 추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063-290-3301) 또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수강생 모집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관절염 환자의 통증완화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인한 통증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8년 제1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대상은 김제시 주민등록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공관절 수술자, 관절염환자, 일반시민으로 선정되며 일단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절염 및 인공관절 수술 등 의사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은 오는 3월 9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18일

까지 주3회(월, 수, 금요일) 오후3시~4시까지 운영되며 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희망자는 3월 2일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중운동교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이루어지며, 아쿠아빙을 이용하여 물에서 생기는 저항과 부력 등을 이용하는 유산소운동으로 근력강화까지 가능한 수중 체조이다.

또한 관절염환자들의 관절구축 예방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건강생활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건강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